

근대중국어¹⁾ 및 民國시기 情態 표현 동량구 ‘一通’의 통시적 고찰

성기은* · 강용중**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근대중국어 ‘一通’의 운용 상황 고찰
 - 1)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 중의 ‘(-)通’의 운용 상황
 - 2) 근대중국어에서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3. 民國시기 ‘一通’의 운용 상황
 - 1) 民國시기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 2) ‘一通’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타 요인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현대중국어 동량사 중 일부는 결합하는 수사를 ‘一’로 제한하여 [一 + 동량사] 형식으로만 출현하며 고유의 의미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研究了一番’, ‘罵了一頓’, ‘笑了一場’에서 [一 + 동량사]는 각각 ‘研究’에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 ‘罵’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음, ‘笑’는 발생 범위에 제약이 없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용례는 노출이 빈번하여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도 의미를 비교적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주저자)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교신저자)

1) 근대중국어의 시기에 관하여, 특히 그 시작 시기에 관하여 학계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오대에서 홍루몽의 출현까지를 근대중국어 시기로 본다(강용중, 2007). 본고에서도 그 범위를 唐代부터 清代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民國시기를 포함시켰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면 ‘一通’은 중국어 학습 과정에 접촉하는 빈도가 매우 낮다.

위에서 예로 제시한 ‘番·頓·場’과 ‘通’은 동량사 중에서 情態동량사로 분류되며(邵敬敏, 1996:102), 이들은 동작 행위의 실현 과정 중의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detailed situation)하는 기능이 있다(周娟, 2010:35). 즉 情態동량사의 특화된 기능은 바로 동작 행위의 실현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동량사에는 없는 기능이다. 이 중 ‘一通’은 강한 개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 중국어가 모국어인 사용자에게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아래는 관련 예문이다.

- (1) 叔父賭運亨通, 接連贏了三回。於是, 他們拿著一大疊白手賺來的鈔票, 到一家豪華餐館去吃喝了一通。
(숙부는 도박 운이 대통하여 연달아 세 번을 뒀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만 뭉치돈을 들고 호화로운 식당으로 가서 한바탕 먹고 마셨다.)

예문(1)의 ‘一通’은 이 음식 저 음식, 싸고 비싸고를 가리지 않고 실컷 먹고 마셨음을 나타낸다. 예문의 ‘한바탕 먹고 마셨다’를 ‘한 번 먹고 마셨다’로 이해하거나 번역하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특히 상술한 ‘一通’의 화자 견해 표현 기능의 발생 시기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근대중국어와 民國시기에 이르는 동안 ‘一通’의 운용상에 나타난 변천 양상을 상술한 情態표현에 기반 한 주관성 표현 기능 발생을 중심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CCL코퍼스(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로부터 唐宋元明清 및 民國 시기별로 [一+通]의 용례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만든 후, [一 + 通]이 고정형식을 확립한 용례를 선별한다. 이외에 각 朝代별로 ‘通’이 ‘一’ 이외의 수사와 결합한 용례가 있는지를 검색하고, [非一 + 通]과 [一 + 通]의 의미와 기능 비교를 통하여 현대중국어 ‘一通’의 특징과 기능이 성립되는 과정

및 확립된 시기를 확정하고자 한다. 예문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 모두 CCL이 출처이다.

본 연구는 情態동량사와 [一 + 情態동량사] 기능 인식을 심화하고, 이를 기초로 동량사의 기능 및 현대중국어의 특징의 하나인 ‘양사 발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근대중국어 ‘一通’의 운용 상황 고찰

본 장에서는 ‘通’과 결합하는 동사와 수사 고찰을 통하여 ‘一通’이 형성되기까지의 변천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근대중국어 전후의 ‘一通’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에서의 ‘一通’ 운용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 중의 ‘(一)通’의 운용 상황

고대중국어 동량사를 연구한 대표적 성과로 『魏晉南北朝量詞研究』(劉世儒, 1965)와 〈隋唐五代的動量詞〉(『課餘叢稿』, 王紹新, 2000)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魏晉南北朝시기 ‘通’은 북을 치는 횟수를 표시하는 동량사로서 ‘333번’을 치면 ‘一通’이다.²⁾ 이외에도 서한이나 상소문 등의 문건의 작성 횟수를 계량할 때도 ‘通’이 사용된다.³⁾ 후자는 隋唐五代 시기 신생 동량사인 ‘頓’과 ‘場’만을 소개하고 ‘通’은 언급하지 않았다.

‘通’이 북을 치는 횟수 및 문서 작성 횟수를 계량하는 기능은 魏晉南北朝 시기 이래로 隋唐을 포함하여 근대중국어까지 기본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이때는 수

2) 夫軍城及野營行軍在外, 日出日沒時, 搥鼓千搥, 三百三十三搥爲一通。(무릇 군을 설치하여 수비하던 도시와 읍, 밖에서 야영 행군할 경우, 일출 일몰 시에 북을 천 번 친다. 333번 치는 것을 一通으로 한다.) 唐『通典·兵二第一百四十九』

3) 그러나 ‘通’은 문서 작성의 횟수를 계량할 뿐 아니라, 문서의 수량을 계량하는 명량사로도 사용된다.

사를 ‘一’로 제한하지 않는다. 아래는 唐『通典』의 예문이다.

- (2) 鼓三通鳴, 大小戰船以次發⁴⁾, 左不得至右, 右不得至左, 前後不得易處。(唐『通典·兵二第一百四十九』)
 (북이 세 번 울리면 크고 작은 군함이 순서대로 출동하는데, 왼쪽의 군함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고, 오른쪽 군함은 왼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며, 앞뒤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예문(2)의 ‘鼓三通’으로부터 북을 치는 횟수를 계량할 시, 결합하는 수사를 ‘一’로 제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예측과 달리 다양한 수사와 결합하지는 않아서, ‘兩·七·八·九·百’ 등과 결합하는 용례는 검색되지 않는다.

이외 이 시기 ‘通’의 情態 표현 기능 여부 검토 역시 본고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을 333번 치는 것을 ‘一通⁵⁾’으로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一通’은 整體性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33번의 ‘打鼓’가 누적되어야 ‘一通’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서한 작성 횟수를 계량하는 ‘通’과 상이한 특징이다.

현대중국어에 이르면 ‘通’은 북뿐만이 아니라 모종의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의 횟수 계량에 확대 사용된다. 그러나 이때 ‘通’은 상술한 누적의 합으로서의 整體性은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다. 呂叔湘에 따르면 이때의 ‘通’은 ‘遍’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⁶⁾, 이는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속이라는 整體性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한 의미를 갖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一通’은 소극적 언어행위에 많이 사용되며, 이때 수사는 ‘一’가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바로 예문1)이다. 이 경우 ‘一通’은 하나의 덩어리(chunk)로 정립되었으며, ‘소극적 의미(貶義)’를 나타내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의 ‘通’은 [tòng]으로 變調되었다. 또한 ‘一通’은 소극적 의미를, ‘一番’은 적극적 의미(褒義)를 표현하는 의미 비교 논문이 다수 저술되었다(周娟, 2010, 何傑, 2008). 이로

4) 예문 중 이 구는 唐代『通典』에서 인용하였지만 출처는 曹操의 〈船戰令〉이다.

5) 각주 2) 참조.

6)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2007(1980):537쪽 참조.

써 현대중국어에는 ‘一通’ 용법이 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없었고 현대중국어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一通’이 과연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대중국어 중의 ‘通과 ‘一通’의 운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宋元明清動量詞研究』(金桂桃, 2007)가 있지만 이 연구는 고정형식으로서의 [一+情態동량사 ‘通’], 소극적 의미를 표현하는 ‘一通’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은 점에서 본고의 연구 주제와 차이가 있다.

2) 근대중국어에서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1) 唐代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唐代 ‘通’의 운용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예문3)와 동일하여 ‘打鼓’과 관련된 용례가 다수를 차지한다.⁷⁾

(3) 舡戰令曰：搥鼓一通，吏士皆嚴：再通，什伍皆就船，整持櫓棹，戰士各持兵器就船。(三國 魏 曹操 〈舡戰令〉)

(舡戰令에서 “북을 한 통 치면 관병들은 다 정비하고, 다시 한 통 치면 15인으로 편제된 병력들이 모두 전함에 올라 정연히 노와 상앗대를 잡고, 전사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승선한다.”고 했다.)

(4) 軍將發，候大角一通，步卒第一團出營東門，東向陣。(唐 『通典』)

(군대가 출병할 때 大角을 한 번 불기를 기다렸다 보병의 제일 군단이 동문으로 군영을 나서니, 진지를 향하여 동진한다.)

예문(3)에서 동사 ‘雷(搥)’를 사용하였다. 같은 예문의 ‘再通’은 ‘兩(二)通’인데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용법은 이 시기에 일반적이어서, ‘戎鼓一通’, ‘嚴鼓一通’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唐代의 예문(4)는 ‘一通’은 ‘打鼓’가 아니라 관악기인 ‘大角’의 연주 횟수를 나타낸다. 이 상황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신호

7) 이와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동량사에 한하는 것이다. 이 시기 ‘通’이 문서를 계량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총 14건 중 ‘打鼓’와 관련된 용례가 5건, 문서 건 수와 관련된 용례가 7건, 기타가 2건을 차지한다.

또는 군악의 일종으로 예술 차원은 아니지만 ‘通’이 악기 연주 횟수를 계량하는 단위로 확장되는 계기를 알려준다.

- (5) 皇后伏。起。拜稱臣妾畢，黃門鼓吹三通。鳴鼓畢，君臣以次出。(唐『通典』)
(황후가 엎드렸다 일어나 절하며 ‘臣妾입니다’ 하고나면 황문에서 세 통을 치고 분다. 북소리가 그치면 군신이 차례로 나간다.)
- (6) 歷事八主，恭惟心累，奏勳勞十通。(『唐代墓誌彙編續集』)
(여덟 분의 주군을 섬기는데 공손히 하고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공훈에 대해 열 번을 奏請했다.)

예문(5-6)에서 알 수 있듯이 ‘打鼓’나 상소하는 횟수 계량 시, ‘通’과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다. 이는 ‘打鼓’와 상소를 포함한 문서 작성류의 동사와 결합 시에는 ‘通’은 명실상부한 단위사이며, 이 시기 본고의 ‘一通’은 출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동량사 ‘通’의 형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용례가 보인다.

- (7) 劉祥幼而聰慧占對俊辯賓客見者號爲神童年十歲能屬文十二通五經。(『周書』列傳第三十四)
(劉祥의 字는 休征으로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다.……열 살에 문장을 지을 수 있었고, 열두 살 때 五經에 능통했다.)
- (8) 覽，字孝智，十六通『老』、『易』。曆官中書郎，以所生母憂，廬於墓。再期，口不嘗鹽酪，冬止著單布。(『梁書』卷四十一)
(劉覽의 字는 孝智로 열여섯에 『老子』와 『周易』에 통달했다. 中書郎에 있을 때 모친의 상을 맞아 묘 옆에 초가를 지어 지켰다. 다음 기일까지 소금과 소젖을 먹지 않고 겨울에는 고작 홑옷만 입었다.)

예문의 ‘十二通五經’과 ‘十六通老易’에는 동량사가 없으며, 여기서 ‘通’은 뒤의 목적어와 결합하는 동사로 쓰였다. 이때 十二와 十六은 각각 ‘12세에’, ‘16세에’의 뜻이고 ‘通’은 통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通’은 ‘막힘이 없음’을 나타내며, 동량사 ‘通’에 이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

(2) 宋代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宋代 ‘通’의 운용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유사하다. 즉 ‘擗·殺·鼓’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북을 치거나 두드리는 횃수를 나타낸다.

- (9) 水夫戰之時擗一通鼓，吏士皆嚴肅，再擗一通鼓，士伍皆就船。(許洞『虎鈴經』)
(대체로 수상전에서 북을 한 통 치면 관병들은 다 엄숙해지고, 다시 한 통 치면 편제된 병력들이 다 배에 오른다.)
- (10) 帝再擊之，始命諸王大臣馳馬爭擊。旗下擗鼓。將及門，逐廂急鼓。球度，殺鼓三通。(『宋史·禮志』)
(황제가 다시 공을 치면 비로소 諸侯王과 대신들이 말을 달려 다투어 친다. 깃대 아래에서 북을 치는데 문 쪽으로 이르게 되면 서로 쫓아서 빠르게 북을 친다. 공이 넘어가면 3통을 쳐 마무리한다.)
- (11) 酒巡未止。鼓吹六經爲公喜。也沒《回風》。只有村中鼓數通。(沈瀛『減字木蘭花·六勸』)(語料庫在線의 예문)
(술잔 돌리기 끝나기 전에 <육경>을 선양해 그대를 기쁘게 하네. <회풍>도 없고 단지 마을에서 북 몇 번 치는 소리 울리네.)

북을 치는 횃수를 나타내는 경우 예문에서와 같이 ‘通’과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다. ‘通’과 ‘一·三·數’ 등이 결합하여 북을 친 실제 횃수를 나타낸다. 이외 문서 작성 횃수를 계량할 때도 ‘通’이 사용된다.

- (12) 褚諫議庭海等十三人，各寫一通，裝縹進內，上大悅，賜三相絹各三百匹，餘官各二百匹。”(『容齋隨筆』)(BCC의 예문)
(諫議 褚庭海 등 13명이 각각 한 통씩 쓰고 옥색 비단으로 싸서 바치니, 주상이 크게 기뻐하며 삼상에게는 각각 비단 삼백 필을, 다른 관원에게는 각각 이백 필을 하사하였다)
- (13) 乙卯年季先生作才私議一通，附過看十。(『朱子語類』)
(을묘년에 선생님께서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지어 보내 주셔서 보았다.)

‘通’은 동사 ‘寫·作’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서신이나 문서를 작성한 횃수를 나타

낸다. 이 시기 '通'과 결합하는 수사는 '一'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사
사와 고루 결합하지도 않는다. 宋代 말뭉치 중의 '通'은 대다수 문서의 수량을 세는
명량사로 사용된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때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다.

(3) 元代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이 시기 말뭉치에서 '通'이 동량사로 사용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뿐 아니
라 '通'이 명량사로 쓰인 용례도 1건에 불과하여 이 시기의 '通'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은 말뭉치를 대대적으로 보충한 후에야 가능하다.⁸⁾

(4) 明代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明代의 '通'의 운용 상황은 기본적으로 宋代와 유사하여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
이 없다. 역시 문서 작성과 '打鼓'와 관련된 행위 계량에 '通'이 사용된다.

- (14) “若不曾中得這個老門生，今日身家也難保。”遂寫懇切謝啓一通，遣兒
子蒯敬共齋回，到府拜謝。(『警世通言·卷十八·老門生三世報恩』)
("만약 이 선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내 자신도 보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하며 곧 간절한 감사의 편지 한 통을 써 아들 蒯敬共에게
가져가게 해 집에 직접 가 고마움을 전했다.)
- (15) 達猛然省悟，即寫表一通，付與來使。(『三國演義』第七十九回)
(孟達は 갑자기 깨닫고 表를 한 통 써 사신에게 주었다.)

다른 시기 말뭉치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三通'의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높
으며 이때 동사는 2건을 제외하면 모두 '打鼓'와 관련된 동사이다. 간략하게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

- (16-1) 鳴鼓三通：諸生每升堂講，鳴鼓三通，橫經捧手。(北宋『冊府元龜』)
(모든 학생들이 堂으로 올라가 수업할 때 북을 세 번 울리면 경서를

8) 金桂桃(2007:252)는 3건의 용례를 제시하였는데 모두 '打鼓'와 吹角 행위 동사이다. 魏兆
惠 華學誠(2008:23)의 연구 결과 『元刊雜劇三十種』에는 관련 용례가 0건이다. 元代 '通'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펼치고 손을 받쳐 든다.)

(16-2) 吹打三通: 每日日落時分, 聽中軍船上吹打三通, 放炮三個, 各船一體鳴金、搥鼓、落旗。(『紀效新書』)

(매일 일몰에 주력군 함선에서 세 번 불고 울리고, 중군이 배 위에서 세 번 불고 울리고 포를 세 발 쏘는 소리를 들으면 각 함선에서는 일체가 되어 鈺을 울리고 북을 치며 깃발을 내린다.)

(16-3) 鼓響三通: 鼓響三通, 兩家子又齊齊的喝上一聲采。(明 『三寶太監西洋記』)

(북이 세 번 울리자 두 사람이 또 나란히 좋다고 한 번 외쳤다.)

(16-4) 搥鼓三通: 搥鼓三通, 一聲信炮, 唐狀元綽槍上馬, 直奔王蓮英。(明 『三寶太監西洋記』)

(북이 세 번 울리고 신호 포가 한 번 울리자 唐狀元은 창을 집어 들고 말에 올라 王蓮英에게 바로 달려갔다.)

(16-5) 擊鼓三通: 乃親自再申五令, 擊鼓三通, 衆宮女含笑愈甚。(明 『周朝秘史』)

(이에 친히 다시 다섯 가지 명령을 꺼내 북을 세 번 치자 여러 궁녀들의 웃음이 더 심해졌다.)

'鳴·(吹)打·響·(發)搥·擊'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打鼓' 방식의 차이를 표현한다. 아래는 '三通'이 '打鼓' 이외의 동사와 결합하는 용례이다.

(17) 向瓶內取出蒼草四十九根, 於爐煙薰過, 卽叩齒三通。(『東漢演義傳』第七回)⁹⁾

(병 안에서 시초 마흔아홉 가닥을 꺼내 화로의 연기로 훈증하고 치아를 세 번 부딪힌다.)

(18) 品了三通畫角¹⁰⁾, 發了三通搥鼓¹¹⁾, 教場裏面誰敢高聲。(『水滸傳』第十二回)

(화각을 세 번 불고 뒤흘을 세 번 쳐 장내에 누구도 감히 고성을 못내도록 한다.)

(19) ……就是敵得他過, 他終沒有償命的理! 你千萬聽我說!”又再三勸解了一通, 去了。(『醒世姻緣傳』第九回)

9) 明代 謝詔의 저작이다.

10) 고대의 관악기로 몸체에 채색을 입혀 畫角이라하며, 일출과 일몰에 시간을 알리거나 군영에서 경보용으로 사용하였다.

11) 전시에 진군을 알리거나 급박한 때 치는 북으로 뒤흘(搥鼓)라고도 한다.

(“.....그에게 대적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가 결국 목숨을 내 걸 이유가 없다. 당신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며 다시 거듭 한번 말리고는 떠났다.)

예문(17)의 ‘叩’는 이를 부딪치는 행위, 예문(18)의 ‘品’은 畫角을 부는 행위로서 전자는 북과 북채가 ‘부딪치는’ 점에서 유사하며, 후자는 군악 연주라는 시각에서 ‘打鼓’가 다른 악기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와 ‘通’의 결합이 이전의 용례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비교하면 예문(19)의 ‘勸解’는 이전의 용례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勸解’는 문서 작성 및 악기 연주와는 전적으로 다른 동사류이다. 앞의 예에서는 동작 행위 실현에 신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일어난 횟수 계량이 ‘通’의 실질적인 기능이다. 이와 비교하면 ‘勸解’라는 행위 실현에 신체의 비중이 높지 않아 물리성이 떨어지는 반면, 언어와 심리의 비중이 높다. 또한 예문의 ‘一通’의 ‘一’이 실제 ‘1회’를 의미하는지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문(19)에서 ‘勸解’ 앞에 ‘又再三’ 즉, ‘다시 여러 번’이라는 수식어가 있어 이 행위를 이전에도 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예문의 ‘一通’은 실제 횟수를 나타낸다기보다 이 행위를 구애받지 않고 막힘이 없이 실현하였음을 나타내며, ‘打鼓’나 문서 작성의 횟수가 가변적인 것과 달리 이 ‘一通’의 ‘一’은 ‘一’ 이외의 수사로 대체될 수 있는 의미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아래 예문은 이 관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0) 原設在中軍放銃一個，原設在陣後左右伏兵與中軍正兵先將鳥銃一通盡放(『紀效新書』卷八)
(원래 진영 후미 좌우 양쪽의 북병과 주력부대의 정예병이 먼저 조총을 한바탕 다 발사한다.)

예문(20)의 ‘一通’은 조총을 쏘지 않고 남김없이 있는 대로 다 발포하였음을 나타내며 ‘一’은 다른 수사로 교체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즉 이와 같은 의미의 ‘一通’의 ‘一’은 ‘1회’의 ‘1’이 아니며 행위가 하나의 整體임을 나타낸다. 이는 현대중국어 ‘一通’의 의미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의 하나이다.

의미 면에서 예문(20)의 ‘一通’은 情態를 표현하지만 본고의 ‘一通’과 다른 점은 화자가 사건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아래는 이를 입증할 관련 예문이다.

- (21) 東方亮、東方清一聞此言，放聲大哭，大家勸解了一回。(『小五義』)
(東方亮과 東方清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통성대곡하자 모두 그들을 한 번 달랬다.)
- (22) 殷氏同歐陽氏將他扶入後院房中，勸解了一番，回到前邊，與文魁洗塵接風。(『綠野仙蹤』)
(은 씨와 구양 씨는 그를 부축하여 후원의 방으로 들어가 한참 위로하고, 앞으로 가 文魁에게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예문(21-22)는 모두 동시대인 明代의 용례이다. 여기서 ‘勸解’는 ‘一回’, ‘一番’과 결합하여 단순히 ‘한 번’ 또는 ‘한참’을 나타낸다. 이 사실을 근거로 예문(19) 明代의 ‘勸解’는 화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一通’은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아래의 용례는 동형 동량사의 원형과 유관하다.

- (23) 他不知那裏扯個紙條，拈作一個紙拈兒，往鼻孔裏通了兩通，打了幾個涕噴，你看他眼淚汪汪，粘涎答答的，哭將起來。(『西遊記』第三十九回)
(그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종이쪽지를 가지고 종이덩어리를 뭉치더니 콧구멍 안쪽으로 두 번 통하게 하니 몇 번이나 제채기를 하고 눈물을 콧칼, 침을 질질 흘리며 울기 시작하는 꼴이라니.)

‘通了兩通’에서 앞의 ‘通’은 동사로 콧구멍으로 접은 종이를 밀어 넣는 행위를 나타내고, 뒤의 ‘通’은 이 동작이 2회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동사의 동작으로부터 동량사가 파생되는 현상은 명량사에서도 발견된다.

(5) 清代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清代 ‘通’은 여전히 ‘打鼓’ 및 문서 작성과 관련된 동사와 결합하며, 이 경우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다. 이는 이전 상황과 동일함으로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다. 이 시기 ‘通’의 분포 환경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첫째, ‘打鼓’와 관련된 용례의 비율이 현격히 감소한 점, 둘째, 결합하는 동사류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明代는 ‘勸解’ 하나의 용례가 처음 발견되었지만 清代에는 다양한 동사가 사용된다. 아래는 관련 예문이다.

- (24) 如何報案, 如何花銀子暗害黃昆之話, 二人滔滔不斷的說了一通。(『三俠劍』第六回)
(어떻게 신고를 할지 어떻게 돈을 써서 황곤을 모함할지 하는 말을 두 사람은 끊임없이 한바탕 얘기했다.)
- (25) 武後又到群芳園看了一通, 分付擺宴與公主賞花飲酒。(『鏡花緣』第五回)
(무후는 다시 군방포로 와 한번 둘러보고는 연회를 열어 공주와 꽃을 보며 술 마시기를 분부했다.)
- (26) 吳、林二人聽了, 暗暗納罕。當時照例搜檢了一通, 真的身無寸鐵。(『孽海花』第三十三回)
(吳彭年과 林義士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놀랐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한바탕 뒤져서 조사하면 정말로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27) 不想越走越深, 忽一陣波浪打來, 把陳爺蕩瀾一通, 沉在水底。(『海公案』第七十四回)
(뜻밖에 가면 갈수록 물이 깊어지더니, 갑자기 파도가 한 번 쳐 천씨를 한바탕 뒤흔들어 수중으로 빠뜨렸다.)

清代에 이르면 ‘通’과 ‘說·看·搜檢·蕩瀾’ 등의 동사와 결합하기 시작한다. 이 중 ‘說’은 총 5회가 사용되어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나머지 동사는 모두 각 1회 출현하였다. ‘說’은 구두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寫·書·牒’ 등 문자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와 비교하면 전달 수단만 바뀌었을 뿐 행위의 목적은 동일한 점에서 자연스러운 확대로 보인다. 또한 예문(11)의 동사 ‘誦’과 비교하면 행위의 목적은 차이가 있지만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음성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니

기 때문에 ‘說’과 ‘通’의 결합이 이전의 결합을 근거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예문(25-26)의 ‘看’과 ‘搜檢’은 상술한 동사 및 ‘打鼓’나 문서 작성 동사와의 연결점을 찾기 어렵고, 예문(27)의 ‘蕩瀾’은 더욱 그러하다. 이들 동사가 기존의 결합 동사와 공통점을 찾기 힘든 점과 수사를 ‘一’로 제한하는 점에서, ‘通’이 기존의 의미 및 형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와 형식을 획득하였으며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본고는 이 점이 바로 현대중국어 情態표현 동량구 ‘一通’의 유래와 관계된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 바대로 북을 333번 친 것을 ‘一通’으로 계량한 것은 행위가 반복·누적되어 하나의 전체가 되고, ‘한 번’으로 인식하자는 점에서 整體性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예문(24-26)의 ‘一通’은 이런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예문(24)의 ‘一通’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결핍 없이 이야기했음을 나타내며, 예문(25-26)의 ‘一通’은 ‘看’과 ‘搜檢’이 막힘없이 실현되었음을 부가적으로 알려준다. 그밖에도 ‘一通’ 운영에 주의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8) 因日青與蔡芳一通口角, 結下仇恨。(『乾隆南巡記』第十一回)
 (周日靑과 蔡芳은 단지 한바탕 말다툼으로 원한을 맺게 되었다.)

예문(28)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원한을 맺게 될 정도로 싸움의 정도가 비교적 깊은 상황을 기술하며 ‘一通’을 사용하였다. 이때 ‘一通’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싸움을 ‘한바탕’ 벌였다고 번역한다. 이는 唐宋元明 시기의 ‘一通’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운영방식으로, 이 이전에 ‘一通’이 결합하는 동사류와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상황상의 유사점을 찾는다면 ‘打鼓’는 주로 싸움, 즉 전쟁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말싸움과 전쟁은 규모 면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싸우다’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清代 이전까지 ‘一通’은 주로 ‘싸우다’는 문맥에 출현하였기 때문에 ‘口角’과 ‘一通’이 결합할 가능성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또한 예문(28)은 ‘一通口角’의 결과 원한까지 맺게 되었기 때문에 ‘一通口角’은 다툼의 정도가 심했음을 나타낸다.

‘打鼓’의 加擊 동작에 비중을 두면 현대중국어에서는 ‘싸우다’류의 동사와 ‘一通’이 결합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9) 哪知道靜秋因爲沒做指望，所以真個是放開了打，左右開攻，胡打一通，連台子旁邊的記分牌都懶得去看一眼。(艾米『山楂樹之戀』)
(靜秋는 희망이 없어지자 정말로 치는 방식을 자유로이 해 좌우를 오픈하고 마음대로 한번 쳐 탁구대 옆의 점수판조차도 한번 거들떠보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 (30) 自稱是魯子敬，責問王伯陽爲什麼毀壞他的墳墓。結果王伯陽被暴打了一通。(『太平廣記』의 백화문 번역)
(자칭 魯子敬이라는 자가 王伯陽에게 왜 자기의 분묘를 훼손했는지 질책했다. 그 결과 王伯陽은 실컷 한번 두들겨 맞았다.)

예문(29)는 탁구공을 마구 치는 상황, 예문(30)은 심하게 때려서 맞는 상황이다. ‘打鼓’ 동작과 이 두 동작의 유사성은 대상 가격에서 찾을 수 있다. 대상이 북에서 공과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打鼓’와 다른 점은 예문(29-30)의 가격 행위에는 행위자의 감정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예문(29)는 靜秋가 포기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스매싱을 하는 상황이고, 예문(30)은 자신의 묘를 훼손당한 魯子敬이 징벌 차원에서 王伯陽을 죽도록 때리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처럼 ‘一通’과 결합하는 행위 동작에 행위자 또는 화자의 감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이전의 ‘一通’ 운영과 대별되는 변화이자, 다른 동량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간주한다.

3. 民國시기 ‘一通’의 운용 상황

1) 民國시기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

民國시기에 이르면 ‘通’과 결합하는 동사 및 수사가 이전 시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 우선 동사 방면에서, ‘打鼓’의 출현빈도는 떨어지고 ‘打罵’류 동사와 질책류

동사의 출현 비율이 높아진다. 결합하는 수사 방면에서 ‘一’의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一’ 이외의 수사는 출현빈도가 낮아, ‘二’ 1회, ‘三’ 4회, ‘數十’ 1회이다. 이중 ‘二’와 ‘三’은 모두 ‘打鼓’ 상황이다. ‘數十’이 출현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31) 於是議和的事, 乃由袁世凱與伍廷芳用電報直接討論, 往返數十通, 依然不得要領。(『清朝秘史』)

(이에 화의에 관한 일은 袁世凱와 伍廷芳이 전보를 통해 직접 토론하게 되었으며, 수십 통이 오갔지만 여전히 요점을 찾지 못했다.)

예문(31)의 ‘通’은 표면적으로는 전보를 친 횟수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오고가는 토론의 횟수를 나타낸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一’ 이외의 수사와 결합하는 경우 ‘通’은 동작이 실제 실현된 횟수를 계량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一’과 결합하는 동사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역시 ‘打鼓’ 상황 관련 예문이 가장 많은 4건이며 이때 동사는 ‘擊’을 사용하였다. 바로 앞에서 확인했듯이 ‘打鼓’ 상황에서는 수사가 ‘一’로 제한되지 않는다. 본고는 ‘打鼓’ 이외의 상황에서 ‘一通’과 결합하는 동사류에 주목하며 아래에 소개하였다. 관련 예문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말뭉치 검색 결과, 질책류 동사 ‘呵斥責罵·喝斥·斥責’, 술을 권하다 ‘敬’(3회), 소리치다 동사류인 ‘喊’(2회)·‘嚷’, 가격류동사 ‘亂打·撞’, 계획하다 ‘謀劃’, 욕보이다 ‘淫污’, 말하다 ‘說’, 섭취류 동사 ‘吃·喝’ 등과 결합하였다.

(32) 直至奉天殿上, 把鍾撞了一通, 那些無恥的文武百官……毋然冠服上朝。(民國小說『明代宮闈史』)

(바로 奉天殿으로 가 종을 한 번 치니 저 엄치없는 문무 백관들과 누구도 관복을 입고 조회하지 않았다.)

(33) 太守拿著棍杖, 亂打一通, 打得他的夫人體無完膚。(民國『古今情海』)

(태수가 곤장을 들고는 한바탕 마구 쳐 그의 부인의 몸에는 성한 피부가 없었다.)

(34) 吳某從京城回家後, 聽信妻妾的讒言, 反而將韓老仆呵斥責罵一通。(民國小說『古今情海』)

- (오 씨가 경성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처첩의 모략하는 말만 믿고 오히려 노비 한 씨를 한바탕 큰소리로 질책하고 욕했다.)
- (35) 寧宗也不置可否，隨他說了一通，好似沒有見聞一般，眞德秀只好走了。(民國小說『宋史演義』)
- (영종 또한 가부를 정하지 않고 마치 들어 본 적이 없는 것같이 그에 영합해 한번 말하기만 하므로 眞德秀는 어쩔 수 없이 떠났다.)
- (36) ……我中了你的奸計！有本事讓我出去，咱明着幹！”傻小子喊一通又一通，就是沒人來。(民國小說『雍正劍俠圖』)
- (“이놈, 내가 너의 간사한 계략에 걸려들었구나. 자신이 있으면 날 내 보내라. 서로 공정하게 해보자.”고 傻小子가 한번 또 한 번 외쳤으나 누구도 오지 않았다.)
- (37) 張方這樂呀：“叔，您別看，咱一個錢不花，您瞧着，到這兒一通又吃又喝。回頭拉家伙動手，咱們就打架，攪鬧他的壽堂。”(民國小說『雍正劍俠圖』)
- (張方這是 기뻐서 말했다. “아저씨,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지만, 두고 보세요, 여기 와서 한바탕 먹고 마실 거예요. 나중에 무기를 가지고 손을 써 우린 싸우고 그의 빈소를 뒤집어버리죠.”)
- (38) 自從舅母去世後，飛紅就成了舅父的寵妾。這時她找到嬌娘謀劃了一通。(民國小說『古今情海』)
- (외숙모가 돌아가신 뒤 飛紅은 외삼촌의 첩이 되었다. 이때 그녀는 嬌娘을 찾아가 한바탕 계략을 꾸몄다.)
- (39) 放在屋後的空房中，過幾天便要打開看看，有時還將屍體弄出來淫汙一通。(民國小說『古今情海』)
- ((애처의 시신을)집 뒤의 빈 방에 두고는 며칠 뒤 열어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체를 꺼내 한바탕 욕보이기도 했다.)
- (40) 妥娘便執了金壺，眞的敬了一通酒，衆人不免歡笑了一陣。(民國小說『隋代宮闈史』)
- (妥娘은 바로 금주전자를 들고 정말로 한 순배 술을 바치자 여러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예문(32-36)은 현대중국에서도 ‘一通’과 결합하며, 이때 ‘한바탕’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예문(32-33)로부터 ‘한바탕’의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32)는 종을 치는 상황으로서, ‘一通’을 통해 종을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두드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것은 이전 시기 ‘打鼓’ 행위와 유사한 데서 기인한다.

두드리는 대상이 북에서 중, 중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한 상황이 예문(33)이다. ‘打’ 앞에 ‘亂’이 첨가되어 앞뒤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이 연상된다. 예문(34)는 두드리는 대상이 사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가격의 수단이 곤장에서 언어행위로 추상화된 것으로 본다. ‘一通’이 언어행위와 결합하는 용례는 이미 명대 예문(19) ‘勸解’에서 확인한 바 있다. 예문(35)에서 ‘一通’과 결합하는 ‘說’은 ‘설득하여 마음을 풀리게 하다(勸解)’나 ‘큰소리로 책망하고 호되게 꾸짖다(呵斥責罵)’는 부가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말하다(說)’ 그 자체이다. 예문(36)의 ‘喊’은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를 치는 행위이다. 예문(34)부터 예문(36)까지는 상호 연관성이 발견되는 반면, 예문(37)의 ‘吃罵’, 예문(38)의 ‘謀劃’ 예문(39)의 ‘淫汚’, 예문(40)의 ‘敬酒’는 예문(32-36)의 동사들뿐 아니라 예문(37-39)의 동사와 비교해도 의미 연관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예문(40)을 제외한 예문의 ‘一通’은 막힘이나 주저함 없이 행동을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예문(40)의 ‘一通’은 이와 달리 술자리에 참석한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차례로 술을 올려 한 순배 돌았음을 나타낸다.

그밖에 현대중국어에서 예문의 동사들이 ‘一通’과 결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예문(33-37)은 현대중국어에서도 여전히 ‘一通’과 결합하지만, 예문(32)의 ‘撞’과 예문(38-40)의 ‘謀劃’·‘淫汚’·‘敬’ 등은 ‘一通’과 결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撞’은 주로 ‘一下’와 결합하고 ‘謀劃’은 ‘一番’과 결합한 용례가 1건 검색되며 ‘淫汚’는 단어 자체가 검색되지 않는다. 예문(40)의 ‘一通’은 현대중국어에서 ‘敬一輪酒’ 또는 ‘敬一圈酒’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검색 결과는 말뭉치의 불완전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말뭉치가 전면적이라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여도, 이 시기에 이와 같은 결합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一通’과 결합하는 동사는 각 시대의 언어사용자의 취사선택에 따라 사용 여부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一通’의 출현 환경이 적극적인가 아니면 소극적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대중국어에서 ‘一通’은 소극적 의미 맥락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문(33-34), (38-39)는 소극적 의미(貶義) 맥락에 출현하였다. 예문

(32), (33-37)과 (40)은 중성적 의미 맥락에 출현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民國 시기의 ‘一通’은 적어도 긍정적인 맥락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民國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通’과 결합하는 동사류가 다양해진 점, 이들 새로운 동사류와 결합 시 ‘通’과 결합하는 수사가 ‘一’로 제한되는 점이다. 이 특징은 현대 중국어 ‘一通’의 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토대로 결합하는 동사(류)가 확대되었다.

이상 唐代부터 民國시기에 이르기까지의 ‘一通’의 운용의 변천 양상을 검토하였다. 唐代부터 明代까지는 큰 변화(‘勸解’ 1건)가 없어 ‘打鼓’ 및 문서 작성 동사류와 결합하여 사용되다, 清代에 ‘말하다’ 동사류로 확대되었고 民國시기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현대중국어와 동일하게 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현대중국어 ‘一通’의 기원을 찾는 것이었다.

2) ‘一通’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타 요인

여기서는 현대중국어 ‘一通’ 형성에 미친 요인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一 + 동량사 通]이 아니라 [一 + 동사 通] 형식으로서의 ‘一通’이다. 이때 ‘通’은 ‘통하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西漢의 “罷關一通, 天下無以區區獨有關中者(관중을 무너뜨려 한 번에 통하면, 천하에 홀로 관중을 소유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宋代의 “桃花深處一通津(복숭아 꽃이 저 깊숙한 곳에 온통 흐드러져 있다.)”, 清代 “一窮一通, 一貴一賤(한 번 막혔다 한 번 통하고, 한 번 귀하다 한 번 천해진다.)” 등에서 ‘一通’은 막힘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본고는 이 ‘一通’은 형식과 의미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량구 ‘一通’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一 + 동사 通]의 의미가 [一 + 동량사 通]에 영향을 미쳐 ‘一通’이 동사와 결합하면 이 행위 동작의 처음과 끝이 막힘이 없이 실현됨을 나타낸다. 현대중국어 ‘一通’에 상술한 의미가 반영되어 동작이 순서 없이, 무질서하게 실현된다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 여기에는 철차

나 실현 과정은 부각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동량사 ‘番’과 대조된다. ‘番’은 更替, 輪值(교체하다, 교대로 일을 맡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행위나 동작이 절차를 밟아 차례로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는 ‘通’과 ‘番’이 교체될 수 없다.

情態를 기초로 하여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一通’의 기능은 실제 계량 횟수를 나타내는 [수사 + 通]보다 늦게 출현하였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즉 처음부터 ‘一通’이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通’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동량사 ‘通’에는 整體性이라는 情態 의미와 ‘막힘이 없이 통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通’을 선택 사용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게 된다.

즉, “다니지만 만나지 않는다.”¹²⁾가 ‘장애물이 없다’, ‘관통하다’로 확대되었고, 이 의미가 동량사 ‘通’에 유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번 통하다’, ‘한 번에 통하다’, ‘하나로 통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一通’은 情態동량구 ‘一通’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절 “2) ‘一通’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타 요인”은 ‘通’의 역할에 주목하여 ‘一通’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一通’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언급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一通’이 소극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성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동사와 동량사 간의 선택 관계는 먼저 동사 내부의 각각의 하위 부류에서 결정되며 또한 동량사 자체의 의미자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동사와 관련된 대상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邵敬敏, 1996:100)

4. 나가는 말

본고는 현대중국어 情態동량사 ‘通’과 수사 ‘一’의 고정 결합한 형식인 ‘一通’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一通’은 주로 소극적 의미의 언어행위 동사와 결합하여 이

12) 通, 達也. 達, 行不相遇也. (『說文解字』)

행위가 '선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순서 없이 일어남', '정도가 심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량사 '通'에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一通'의 성립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그 변천 양상을 기술하는 한편 이 통사 형식의 발생 및 확립 시기 파악을 목표로 하였다.

고대중국어 '一通'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근대중국어(唐代부터 清代까지)와 民國시기의 '一通'의 운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근대중국어 '一通'은 기본적으로 고대중국어 '一通'의 운용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 시기 '通'은 여전히 '打鼓' 행위와 문서 작성 행위 동사와 주로 결합하였다. 이 경우 '通'과 결합하는 수사에는 제한이 없으며, 동작의 실제 실현 횟수를 계량하는 단위사 역할을 담당한다. 첫 번째 유의미한 변화는 明代에 발생하였다. 明代 말문치에서 언어행위와 관련된 용례인 '勸解了一通' 1건을 발견하였다. 清代에는 '通'과 결합하는 동사가 좀 더 다양화되어 '說·看·搜檢·蕩瀾·口角' 등의 동사와 결합하였다. 清代 '一通'이 '蕩瀾·口角'처럼 소극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점, 특히 비언어행위 동사인 '蕩瀾'과 결합하는 현상은 현대중국어 '一通'의 용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民國시기에 이르면 근대중국어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가 현저해진다. 첫째 '一通'은 '呵斥責罵·亂打' 등의 소극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는 점이다. 이는 현대중국어 '一通'의 용법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이의 영향으로 '謀劃·吃·囑' 등의 중립적 의미의 동사가 '一通'과 결합하면 소극적 의미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게 된 점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본고는 현대중국어 '一通'의 용법은 清代 맹아기를 거쳐 民國시기에 발아하여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활성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參考文獻〉

- 강용중,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構成과 要件에 대한 試論」, 『중국어문화연구』 제10호, 서울, 중국문화연구학회, 2007.
- 郭文婷, 「“一通”和“一氣”的異同及其演化歷程」, 『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江蘇, 淮陰師範學院, 2014年.
- 郭先珍, 『現代漢語量詞用法詞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2.
- 金桂桃, 『宋元明清動量詞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7.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2006.
- 邵敬敏, 「動量詞的語義分析及其與動詞的選擇關係」, 『中國語文』第2期(總第251期), 北京, 中國語文雜誌社, 1996.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王紹新, 「從幾個例詞看唐代動量詞的發展」, 『古漢語研究』第2期(總第35期), 湖南, 湖南師範大學, 1997.
- 王紹新, 「隋唐五代的動量詞」, 『課餘叢稿』,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0.
- 魏兆惠, 華學誠, 「量詞“通”的歷史發展」, 『漢語學報』第1期, 湖北, 華中師範大學, 2008年.
- 劉街生, 「現代漢語動量詞的語義特徵分析」, 『語言研究』第23卷 第2期, 湖北, 華中科技大學中國語言文字研究所, 2003.
- 劉世儒, 『魏晉南北朝動量詞研究』, 北京, 中華書局, 1965.
- 劉永靜, 『漢語動量詞認知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山東, 山東大學, 2016.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周娟, 『現代漢語動詞與動量詞組合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廣東, 暨南大學, 2007.
- 周娟, 「動量詞“番”“通”“氣”的語義差異及其歷時解釋」,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2卷 第4期, 寧夏, 寧夏大學, 2010.
- 何傑, 『現代漢語量詞研究(增編版)』,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8.
- 孟琮, 『動詞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CCL(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Y).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 BCC漢語語料庫 <http://bcc.blcu.edu.cn/zh/cid/5>
- 語料庫在線 <http://corpus.zhonghuayuwen.org/ACindex.aspx>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f Modal Momentum Quantifier Phrases
in Modern Chinese and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Seong, Gi-Eun / Kang, Yong-Joong

The modern Chinese 'Yi tong' is mainly combined with a negative meaning verb, indicating the meaning of this act and behavior, such as 'act in disorder', and 'The degree of act and behavior is very high'. This function is very unique, but so fa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its origi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formation process of 'Yi tong' and through diachronic investigation, we will grasp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Yi tong'.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operation pattern of 'Yi tong' 'in modern Chinese (from Tang Dynasty to Qing Dynasty) and Republican China,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ancient Chinese 'Yi tong' and the operation of modern Chinese 'Yi tong'. The first significant change occurred in the Ming Dynasty. It was founded one case of 'quan jie le yi tong(劝解了一通)' in corpus of Ming dynasty. In the Qing Dynasty, the verbs that combine with 'Tong' are more diversified and combined with verbs such as 'shuo(说) · kan(看) · sou jian(搜检) · tang lan(荡澜) · kouj ue(口角)'. In Republican China,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in comparison with modern Chinese. First, 'Yi tong' is a combination of passive verbs such as 'he chi ze ma(呵斥责骂) · he chi(喝斥) · chi ze(斥责)'. This is in full agreement with the usage of contemporary Chinese 'Yi tong'. Second, when the verb of neutral meaning such as 'mouhua(谋划) · chi(吃) · he(喝)' is combined with 'Yi tong', it has the function of forming negative meaning.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usage of "Yitong" in today began to develop in the Qing Dynasty, activated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completed in contemporary Chinese.

Key words: detailed situation, verbal classifiers, ‘*Yi itong*’, derogatory sense, diachrony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